

더 민주적인 세상

Democracy More

Parti

Parti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빠띠

더 민주적인 세상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일상과 세상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킵니다

Parti Democracy More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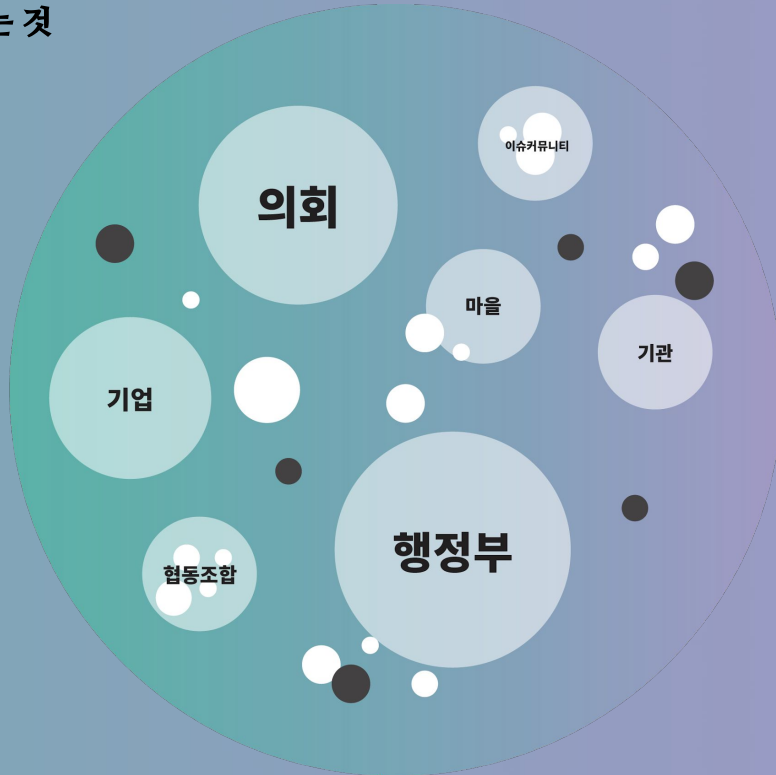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젠더불평등, 생태계파괴...



Parti Democracy More

우리가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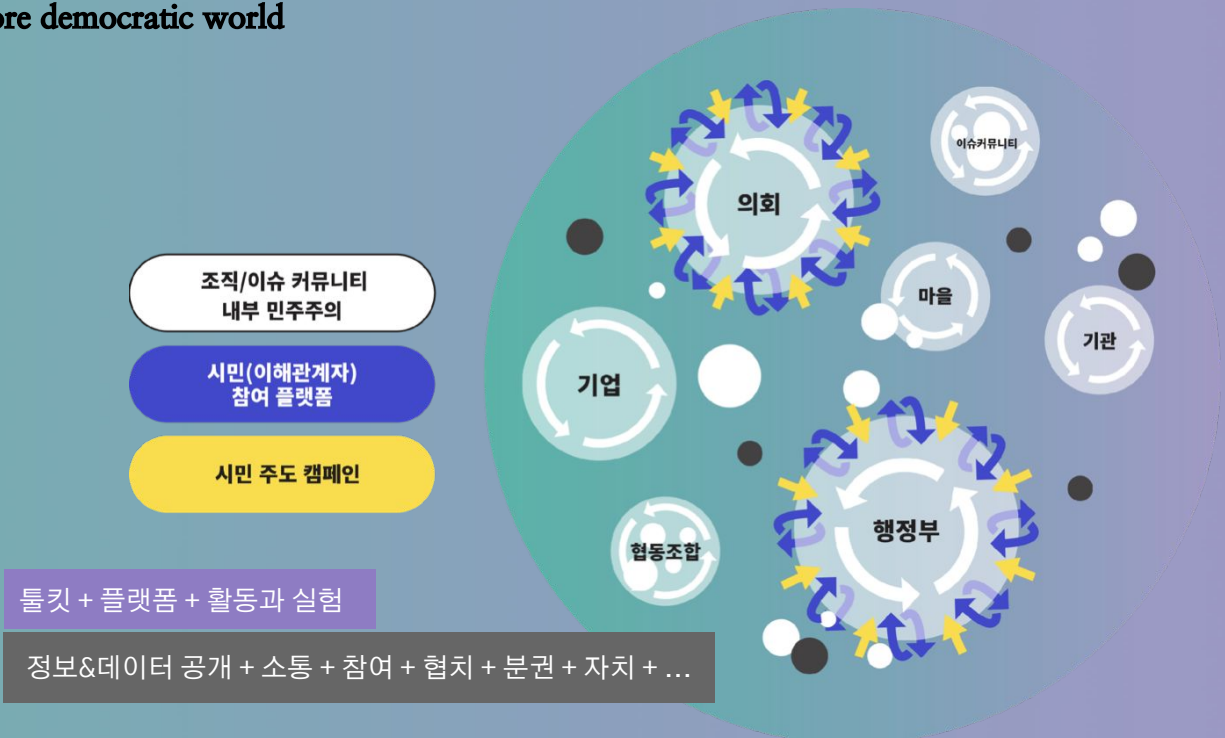
더 민주적인 세상으로 바뀔다는 것



Parti Democracy More

더 민주적인 세상 - 새로운 소통과 협력

For a more democratic world



Parti Democracy More

플랫폼

툴킷

커뮤니티

실험

더 민주적인 세상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일상과 세상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킵니다

빠디 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혁신적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Parti Democracy More

빠디의 민주주의 툴킷 - 새로운 소통과 협업 방식의 개발

Parti Democracy Toolkits - New Way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for Democracy

광장, 물고기떼, 돌탑, 프렉탈, 나

열린 광장 같은 일상의 공간,
협력이 필요할 때 물고기떼처럼,
함께 돌탑을 쌓듯이,
사회의 작은 부분의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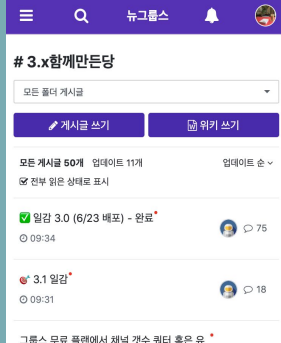


Parti Democracy More

빠띠의 민주주의 플랫폼 -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

Parti Democracy Platforms - IT Infrastructures for Democracy

빠띠 그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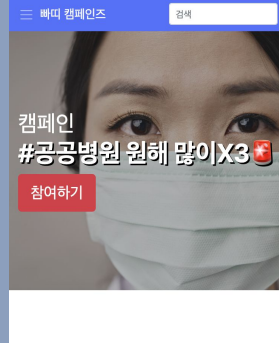
팀과 커뮤니티를 위한
민주주의 플랫폼
parti.xyz

빠띠 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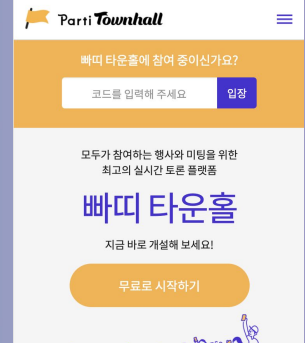
일상의 공론장 플랫폼

빠띠 캠페인즈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일상정치플랫폼
campaign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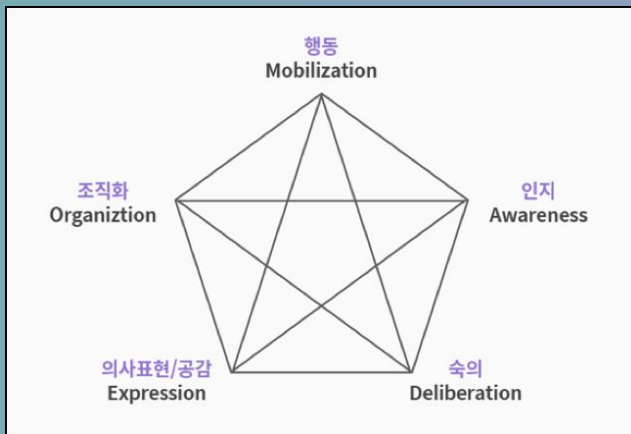
빠띠 타운홀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미팅을
위한 실시간 토론 플랫폼
townhall.kr

빠띠의 민주주의 툴킷 - 새로운 소통과 협업 방식의 개발

Parti Democracy Toolkits - New Way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for Democracy



청년 활동과 거버넌스

공익

- 공공의 이익,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공익활동

-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
[NPO길라잡이]

시민공익활동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



[1] 청년당사자운동의 목소리 내기
 청년유니온은 청년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처지를 극복하고자 피자 배달 30분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운동 등의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



[2] 청년당사자운동과 서울시의 사회적 교섭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청년당사자운동은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부터 청년 기본 조례 제정까지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지방정부가 청년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다짐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



[3]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통한 실질적 지원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등 중간지원조직 및 청년활력공간 설치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4]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 서울시와의 청년 거버넌스를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청정넷을 중심으로 청년 당사자 대표들이 모여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준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청년의회'



[5]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의 심화

- 시장 직속 행정집행조직 ‘청년청’+상설 거버넌스 ‘서울청년의회’를 내용으로 하는 ‘청년자치정부’라는 급진적인 정책 실험을 하고 있는 중
- 당사자 조직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 내에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제도적 변형을 이루어냄



[6] 청년기본법 제정 ○ 제정 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6] 청년기본법 제정 ○ 주요 내용

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제4조 및 제5조).

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제9조).

마.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제11조).

바.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제13조 및 제14조).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청년 당사자의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empowerment: 힘·권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적게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

- 청년 당사자 자신의 자발적 표출
- 청년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 부여 및 확대
- 청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의 지원 및 독려
- 청년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담론, 정책 제안 등의 구성
-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 및 제도 변형
- 청년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급진적인 청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민주적 소통과 퍼실리테이션

소통communication

-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

민주주의democracy

- demos데모스(시민, 민중, 대중)의 kratia지배
-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실행하는 주의나 제도, 사상

민주주의와 소통

-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소통을 전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소통은 민주주의를 전제한다.민주주의와 소통은 상호 전제하는 관계이다. 이를 위해 소통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 소통의 전제

- 갈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필연적인 일부분이다. 갈등이 파괴적으로 극단화되지 않고 평화적 전환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서로의 피할 수 없는 차이를 환영하라. 다른 의견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서로배움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깊이 소통해야 할 이유이다.
- 불평등을 생산하는 사회구조의 문제, 이를 담지하는 권력에 의한 억압을 깊이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라.
- 더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새로운 힘은 공동의 성찰과 그것을 통한 관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 시민들이 직접 함께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협업과 네트워크의 형성은 민주적 소통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발전시킨다.
- 서로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잠재적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다. 그 힘이 항상 일상의 경험에서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한 과정 속에서 때로 현실화 된다. 그러한 힘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민주적 소통에 의한 속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민주적 소통의 목적이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적 소통과 민주적 소통

- **사회적 소통:** 사회구조에 의해 유형화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깊이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소통행위
- **민주적 소통:** 감성과 이성, 공감과 숙의가 조화로운 합의, 통합, 협의, 조정, 연대 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사소통행위
- 사회적 소통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소통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민주적 소통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언어와 비언어적 몸 소통이 타인에 대한 환대를 지향하고 있는지, 억압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기변화역량이다.

공론장

-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
- 정부를 포함하는 국가와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사회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간
- 시민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의하여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공적 공간
-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 이성에 입각한 깊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배움, 상호변화, 상호합의의 공간
- 공론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론화 기구에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까지 다양한 층위와 영역에 존재할 수 있음



퍼실리테이션 Facilitation

- 참여자들의 숙의를 통한 1) 문제 구체화/문제 해결/아이디어 창출, 2) 그에 관한 합의 형성/협의/조정, 3) 이 과정에서의 교육/학습/상호변화/지식 창출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소통의 장을 만들고, 참여자와 다른 참여자를 연결하여 협력의 역량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요약하고 구조화하여 제시함
- 공론장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의 주도적 참여를 독려하여 더 나은 숙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발휘함



퍼실리테이터의 자세

1.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에 관여하지 않고 숙의의 프로세스를 관장해야 한다.
- 참여자들의 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퍼실리테이터는 겸손해야 한다.

- 겸손함은 참여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존중하는 일이다.
- 퍼실리테이터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무시 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높이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다.

3. 퍼실리테이터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들이 결정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공간의 점유, 경청과 관심 반응의 빈도를 가능한한 동등하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퍼실리테이터의 본인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참여자들의 말에 골고루 공평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평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리액션의 차원도 있지만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반응의 차원이기도 하다.

4.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 참여자들과 퍼실리테이터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참여자들 사이의 소통, 이해, 공감, 교류, 협동, 관찰, 비교 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대의 시작: 아이스 브레이크

-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참여자들을 환대
- 본격적인 대화나 토론에 앞서 돌아가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기소개(‘투머치토크’를 방지하는 효과)
- 나이, 직책 등 위계와 관련되는 소개 지양. 인생의 화두나 최근 관심사 등으로 자기소개
-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지하는데 초점
- 몸 혹은 입을 풀어줌으로써 긴장을 없애는 것



안전한 ‘상호 환대’의 공론장

-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보니 각기 다른 생각들이 모두 환영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
- 편안함, 안전함이 있는 ‘뭐든지 괜찮아’의 문화 형성



평등한 ‘상호 경청’의 공론장

-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
 - 내용: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의 핵심을 놓치지 않음
 - 형식: 아이 컨택, 고개 끄덕이기, 적절한 추임새
- 지도, 통제 하지 않기
 - 리더나 스피커의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평등한 개인들의 의견 교환이 원칙
-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 여러 사람이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
 - 핵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 설명 및 사례 제시 등에 한정하여 말하기
- 공감적 이해를 하며 경청
 - 이해 없는 공감은 토론이 아니며, 공감 없는 이해는 상호변화에 제한적
 - 상대방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이해에 기반한 논리적 설득 및 변화의 방향을 지향

자유로운 '상호 발화'의 공론장

- '말해도 될까'의 걱정(틀리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무시당하면?) 같은 강박증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독려
- '모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쪽이야 저쪽이야?', '결론만 말해' 등 결정론적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들의 상호경쟁 및 보완 가능성을 전제하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독려



요약과 연결을 통한 '관계 형성'의 공론장

- 참여자들의 말을 잘 요약하여 체계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은 참여자들에 대한 인정과 연결을 의미
- 대부분의 의견들은 키워드로 요약됨. 선택을 통한 '빼기'가 아니라 요약할 통한 '더하기'가 필요. 요약은 더 넓고 깊은 소통의 가능성이 되기도 함

정리와 공유를 통한 ‘공론장 이후’의 공론장

- 공론장의 목적은 때로는 ‘합의’이기도 하지만, 항상 ‘확산’이기도 함
-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핵심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
- 요약 및 재배치, 체계화 등의 정리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
- 공론장 이후, 결과물을 활용한 더 나은 인식의 활용, 더 나은 활동의 추진

퍼실리테이션의 몇 가지 스킬들

- 이야기의 마지막 단어를 반복하라.
 - “역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 키워드를 반복하라.
 - “토론에 있어서 퍼실리테이션 능력은 중요한 스킬입니다.”
 - “앞으로는 퍼실리테이션이 대세겠어요.”
-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짧게 정리하여 공감을 표하라
 - “열심히 진심을 다해 듣고 공감하는 것은 소통에 필수적이에요.”
 - “이를테면 진심어린 경청인 셈이네요.”
- ‘정말’, ‘과연’ 등의 추임새를 넣으면 좋다.
- 통제가 아닌 독려가 필요
 - 시작 시간의 재촉, 출석 체크도 권력자를 드러내는 일
 - 퍼실리테이터가 통제 욕구에서 해방되어 있는 것이 중요
 - ‘결론이 무엇인가요?’라고 성급하게 묻지 말아야 함
 -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어법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어법으로 말할 필요가 있음
-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다원적/창발적 접근이 필요하다.
 - 즉각적인 답, 하나의 정답, 양자택일 토론, 암시된 결론을 권장하지 않음
 - 개방적 태도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다양한 의견/감성/가능성이 마구마구 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라운드를

더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라운드를

청년참여플랫폼 버터나이프크루

버터나이프크루의 대화 지향: 모임의 안전함과 평등함

- +버터나이프크루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다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높이 평가합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대화를 합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닌 **비평을 합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옳고 그름을 찾기 위함이 아닌 **진실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동의와 불일치를 찾기 위함이 아닌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다른 점을 찾기 위함이 아닌 **공통점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피드백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피드백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 +버터나이프크루는 공격하거나 방어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거나 창조할 길을 모색합니다.**

참고도서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



그라운드룰

바꿈 평등한 공론장 약속문



평등한 공론장약속문

바꿈 공론장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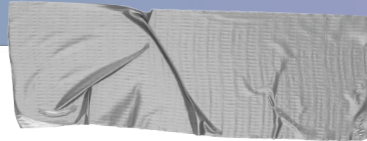
- 1 서로서로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 2 서로서로 **민주적인 소통**과 서로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3 모든 참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4 더 나은 속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잘 **경청**하여 집중합니다.
- 5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을 합니다.
- 6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국적, 인종, 나이, 출신지, 학력, 종교, 정치관, 성별, 성적지향, 성적 지향, 혼인여부, 장애여부, 사회적 지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7 말하는 시간의 독점, 전문 언어의 독점, 지시, 명령, 경고, 협박, 훈계, 설교, 충고, 비판, 비난, 비하, 욕설, 비웃음, 일방적 분석 및 진단, 일반화, 무시, 회피 등을 하지 않습니다.
- 8 기본적으로 **걸어**를 사용하고, 상호간의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속의 토론 시간에는 서로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배려하여 서로 **걸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꿈은 공론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예정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바꿈 공론장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룰

일인당



일인당 그라운드룰

함께 지켜주셨으면 하는 약속이에요 :-)

- ★ 기본적으로 상호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에 주의합니다.
- ★ 타인이 발언 중일 때는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 ★ 누군가 발언권을 과하게 행사하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 ★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개인의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 누군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제지하거나 지적합니다.
- ★ 활동과 내용의 방향이 성평등을 훼손하거나, 특정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자유로운 논쟁은 추구하되, 감정적 비난은 자제합니다.
- ★ 주제(혹은 목표) 외의 지나친 논쟁은 자제합니다.
- ★ 타인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라운드룰

우리에게 필요한 그라운드룰을 함께 만들어요

Q & A

회고

오늘 함께한 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함께 만든 그라운드룰을 잘 지켰나요? 나의 점수는?!

오늘 이후 내 활동에서 실천/적용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Parti

Democracy More

<https://parti.coop>

contact@parti.coop